



무궁화 캐릭터를 타일, 벽지, 도장, 실자수 등에 새겨넣어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김영만 대표. 무궁화 캐릭터를 대표하는 '무궁돌이'와 '무궁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궁화 피면 사랑도 피죠”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

김영만



독자김이 캐릭터 '무궁돌이'

과 이미지를 스케치 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도 무궁화 그리기에 온 정성을 쏟았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선·후배 디자이너와 친분 있는 대학 교수 등을 만날 때 마다 무궁화를 응용한 도안과 캐릭터를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궁화 도안과 캐릭터 그리고 이미지를 합치면 1만 2천 여점에 이른다. 나라꽃 도안하나 제대로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나라꽃 도안이 가장 많은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도안 캐릭터 이미지 1만 2천여점 '나라꽃 무궁화'로 청와대 전시도 사이버 100만 그루 심기 등 펼쳐 테마 동산 조성, 교육관 건립 꿈

그중 2002점의 작품은 1999년 산업자원부 선정 '제1회 한국 밀레니엄 상품'으로 뽑혔고 '나라꽃 무궁화 2002'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특별 전시되는 영예도 안았다.

상도 많이 타고 도안을 비롯한 이미지와 캐릭터는 날로 쌓여만 갔지만 실상 이런 작품들을 널리 알릴 곳은 오히려 마땅치 않았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2000년 8월 15일에 맞춰 문을 연 무궁화 전문 웹사이트 '무궁나라(www.mugunnara.com)'다.

그때부터 김대표는 '생활 속 무궁화 보급'을 목표로 그 동안 제작된 무궁화 도안과 이미지, 캐릭터는 물론 무궁화 관련 정보·게임·이메일·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무궁화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무궁나라'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이트를 오픈한지 1년 만에 가입자는 10만명을 훌쩍 넘었고 대형 포털과 정보통신부 추천 사이트로도 선정됐다.

이처럼 김대표의 무궁화 알리기 운동은 순풍을 타는 듯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한지 채 3년도 못돼 문을 닫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비영리로 운영하다보니 사이트를 꾸러나갈 돈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사이트 문은 닫았지만 무궁화 바로 알리기에 대한 김대표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오프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무궁화 디자인을 연구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통문화를 현대화할 사단법인 장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한 호스팅 업체가 무료로 무궁나라 사이트를 호스팅

원동력은 무궁화를 사랑하는 '무궁나라' 회원들의 응원과 성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음(15)·김현우(17) 학생들의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남다르다. 강민음 학생은 '무궁나라'에 마련된 '사이버 무궁화 심기 코너'에서 지금까지 2002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심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수 백 그루의 무궁화 화분을 분양했다. 또 각종 무궁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휩쓴 김현우 학생은 "식물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 무궁화를 연구해 무궁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며 매일 같이 무궁나라 게시판에서 김대표와 함께 무궁화 얘기를 나눈다.



타일에 새겨진 무궁화 캐릭터들.

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시인 김광림씨를 비롯해 미술계 인사들도 김대표를 돕겠다고 하나 들씩 연락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2003년 창단된 것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다.

"무궁화 알리기에 더 박차를 가해야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무궁화 심기 운동과 무궁화 도안이나 디자인을 활용해 무궁화를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품에 응용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표는 자체 제작한 무궁화 도안이 그려져 있는 타일, 도장, 실자수, 석고상, 벽지, 뱃지 등을 자재 결연한 학교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10년 동안 김대표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궁화를 사랑하는 '무궁나라' 회원들의 응원과 성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음(15)·김현우(17) 학생들의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남다르다.

강민음 학생은 '무궁나라'에 마련된 '사이버 무궁화 심기 코너'에서 지금까지 2002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심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수 백 그루의 무궁화 화분을 분양했다. 또 각종 무궁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휩쓴 김현우 학생은 "식물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 무궁화를 연구해 무궁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며 매일 같이 무궁나라 게시판에서 김대표와 함께 무궁화 얘기를 나눈다.

이처럼 팬들의 응원만큼이나 김대표가 그동안 펼친 무궁화 알리기 운동도 다양하다. 2001년 10월에는 만해기념관에서 열린 '무궁화 사랑 백일장'을 2002년 3월에는 중견 미술작가 33인이 그린 다양한 무궁화 작품 50여점을 선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무궁화 동산에 100만 그루 무궁화 심기 운동, 무궁화 한글 이메일 보급, 사이버 무궁화 박물관 운영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무궁화 지킴이' '무궁화 박사' '무궁화 아저씨' 등 다양한 애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호칭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친다.

"사재를 털어 무궁화 품종 개발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유달영 박사는 같은 분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무궁화 디자인을 개발하고 무궁화를 심는데만 그치지 않고 무궁화에 담긴 정신과 민족의 얼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대표는 2008년까지 각 지역에 무궁화 테마 동산을 조성하고 무궁화 교육관 건립 및 무궁화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원대한 꿈을 세우고 있다. 단기 4338년 개천절을 맞아, 나라 사랑의 상징 무궁화에 대한 김대표의 가이없는 사랑은 무궁화에 무관심한 우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 나라에 비춘 달아/ 쇠장을 넘어와/ 나의 마음을 비춘 달아/ 예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고...
망국의 한과 구국충정을 무궁화에 투영시킨 만해 한용운의 시조 '무궁화를 심고파라'다.

5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겨레의 꽃 무궁화.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무궁화의 자화상'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무궁화 도안 제작 및 무궁화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영만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43)다.

김대표가 무궁화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96년 여름이다. 꽃문양을 연구하기 위해 서적을 찾은 김대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영국·대만의 국화인 벚꽃, 장미, 매화에 대한 도안과 이미지 관련 서적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안집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

"정작 나라꽃이지만 무궁화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 보면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무궁화를 도안해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고 이미지화 시키면 누구나 쉽게 무궁화를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일 것 같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때부터 김대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무궁화 도안

로 김영만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43)다. 김대표가 무궁화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96년 여름이다. 꽃문양을 연구하기 위해 서적을 찾은 김대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영국·대만의 국화인 벚꽃, 장미, 매화에 대한 도안과 이미지 관련 서적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안집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

"정작 나라꽃이지만 무궁화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 보면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무궁화를 도안해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고 이미지화 시키면 누구나 쉽게 무궁화를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일 것 같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때부터 김대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무궁화 도안

호국대성 사명대사 제524회 추계향사

表忠寺 四溟祭典

불기2549(2005)년 10월 8일(토) ~ 10월 10일(월) 표충사 경내일원 및 표충사당

제524회 추계향사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표충사당

9시 10분 | 사명대사 추모 전국 한국백일장·삼일전
2-4시 | 전국 학생 응원대회·삼일전
4-5시 | 사명대사 학술발표회·삼일전
5-8시 | 표충산사음악회·삼일전 및 특선무대
8-9시 | 행사물 상영·삼일전

산사음악회 10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표충사 설법전 앞 특설무대

시라가 이상복	명인 강부자	가수 장미화	국악인 신영희	가수 김민중	가수 정만호(보통사)
가객인 신재수	가수 김상배	가수 박정식	가수 장계현	가수 마무다래	가수 윤성현(보통사)

표충사 사명제전 봉행위원회 TEL.055)352-1070 www.pyochungsa.or.kr